


VOL. **37**
2020 / 01

칭포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PT. Asia Chemical Industry**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ACI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재인니 한국건설협의회(AKCI) 신년회 열려 TSP 이기홍사장 차기회장으로 선임



지난 11일 재인니한국건설협의회(AKCI)는 2020년 신년회를 리버사이드CC에서 열었다. 이날 신년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전조영공사와 김동진국토관을 비롯해 건설협회의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결의와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김동진국토관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정부간 협력방안에 대해 강의했으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통한 우리 건설기업의 기회와 비전을 제시하고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건설기업의 왕성한 활동

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신년행사에 한국건설협의회(AKCI)의 이강우 회장의 임기가 끝나 새 회장의 추대 및 선출이 있었고 신임회장에 TSP 이기홍사장이 추대, 선출되어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당초 전임회장이었던 롯데건설 이강우 회장은 한국본사로 귀임하게 되어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신임회장 선출의 매끄러움으로 2020년을 시작하는 새 집행부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협회는 이날 신규 회원사로 동서퍼니처 박용한 사장과 조양일렉스 김광범사장이 새 가족으로 활동하게



▲ 신임 이기홍회장

되었다. 그리고 PT.SSA의 황의상사장은 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난시절의 힘겹고 어려움을 버텨왔던 우리 건설기업의 흔적들을 생생하게 후배기업들에게 전달해주는 귀한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9년에는 약 48억불이라는 최고의 수주를 올려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건설기업의대단한 성과를 보였고 2020년 인도네시아는 수도이전이라는 대형프로젝트와 한국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등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인도네시아 한국건설기업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며 각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의 새해를 기대 해본다.



印尼 新수도 도시 계획 최종안에 미·중·일 기업 지원 의향



국영 안파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깔리만판주에 건설되는 신수도의 도시 계획 최종안에 대해 미·중·일 3개국의 기업이 지원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3일에 열린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도시 계획 공모 수상자와 가진 회의에서는 도시 계획 최종안에 해외 컨설턴트의 협력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바수끼 장관은 미·중·일 등 기업으로부터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 제의가 있음을 밝히며, 2개국 간의 자금 협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신수도의 도시 계획 공모전에는 755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현지 디자인 회사 '어반플러스(Urban+)'가 발표한 '나가라 림바 누사(Nagara Rimba Nusa)'안이 1위로 선정되었다. 바수끼 장관은 어반플러스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상위 2개안과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도시 설계가의 협력과 조연도 얻고 최종안을 정리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2019년 재정적자 353조 루피아... GDP 대비 2.2%”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7일, 2019년의 재정적자가 353조 루피아(잠정치)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96조 루피아, GDP 대비 1.84%였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입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957조 루피아, 세출은 4.4% 증가한 2,310조 2,000억 루피아로 목표 달성률은 각각 90%와 94%였다. 세출의 65%에 해당하는 1,498조 9,000억 루피아가 중



양 세출이었다. 중앙 세출은 목표액의 92%, 지방 교부금 및 마을 기금은 98%였다. 스리 재무장관은 GDP 대비 재정적자에 대해 “목표치까지 축소할 순 없었지만, 다른 신흥국에 비해 낮게 억제했다”라고 평가했다.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INTERNET MODUL)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REACTOR Transportation
(LxWxH @ 35.0X7.95X8.45 M)



TRANSFORMER Transportation
(LxWxH @ 11.8X4.4X5.5 M/288 TON)

“ **항상 고객의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합니다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Telp: (+62 21) 2525-123 Fax: (+62-21) 2520-551, 2520-556
Email: hanindo@hanindo.net Website: www.hanindoexpress.com
HP: 081-848-5570 (Mr. CHO) HP: 0821-3247-7571 (Ms. KIM)

MRT자카르타-국영철도 KAI, 합작회사 설립... 자카르타 철도 통합 추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도시철도(MRT)를 운영하는 MRT 자카르타(PT MRT Jakarta)와 국영 철도 크레타 아베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KAI)는 10일 철도 통합 준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합작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한다.

합작회사는 모다 인터그라시 트랜스포타시 자보데타벵(PT Moda Integrasi Transportasi Jabodetabek, MITJ)으로 출자 비율은 MRT 자카르타가 51%, KAI가 49%이다.

현지 언론 콤포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아니스 주지사는 10일 서명식에 참석해 “통합 사업의 제1단계로 KAI의 중앙 자카르타 빠사르 스넨역, 주안다역, 파나야방역, 수디르만역 4개 역을 3월까지 개발한다” 라고 말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비율은 현재 1대 3이다. 2030년에는 이를 반반으로 만들고 싶다. 최종적으로 3대 2의 비율까지 달하고 싶다” 고 말했다. KAI와 MRT의 연간 이용자 수는 총 3억 9,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부디 교통장관은 “자카르타의 이러한 협력 모델이 성공하게 된다면 지방의 대중교통 개발의 시초가 될 것이다. 각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해양투자조정부, 바빔-빈판 연결 대교 착공 준비 완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리아우제도주 바빔과 빈판섬을 세 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바빈 대교(Jembatan Babin, 길이 약 7km)’ 착공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인 후 즉시 건설에 착수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양투자조정부 리드완 차관(인프라 담당)은 “상세설계(DED)는 이미 끝났다. 투자 형태와 자금 조달 방법은 대통령의 승인 후에 결정할

다” 라고 언급했다.

바빈대교 건설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바빔산업진흥청(BIDA)이 2005년에 제안했다. 2020~2024년 중기개발계획(RPJMN)에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 비용은 7조 3,000억 루피아에 달할 예정이다. 바빔-판중사우섬(약 2.17km), 판중사우섬-빨라우 부루섬(3.9km), 빨라우 부루섬-빈판섬(900m) 4개 섬을 연결한다. 완성되면 동부 자바 수라바야와 마두라섬을 연결하는 수라마두 대교(5.4km)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된다.

리아우제도주 이스디안포 주지사는 “2017년에는 중국의 에너지 대기업이 건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조건면에서 타협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설명했다.

[신년사]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인도네시아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마트라 북단에서 파푸아 남단까지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서명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또 한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진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말부터 연산 25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버스를 타고 5박 6일 동안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짜레본, 브레베스, 솔로를 거쳐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횡단하는 ‘뜨고 낭자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섬 곳곳에 한류를 홍보하

는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4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조코위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은 최초의 한인인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대사관은 한인회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의미있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인 이주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민족의 ‘Maju Bersama’의 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사로 부임한 2018년 첫 해 롬복 지진과 빨루 지진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자카르타 지진과 자바섬 대정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대사관은 한인 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문자공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리, 롬복 여행시 좀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극 동참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영민함과 근면함으로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에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印尼 신수도 개발, 한 걸음 전진...도시 공모전 수상작 설계에 도입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동부 깔리만판주에 건설하는 새로운 수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올해 중반까지 신수도의 핵심이 될 중앙행정지역(Kawasan Inti Pusat Pemerintahan, 이하 KIPP)의 최종 설계를 완료한다.

이날 발표한 새로운 수도의 도시 계획 공모전에서 수상한 3개안의 콘셉트를 설계에 도입한다. 올해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기초 인프라의 준비를 시작하고, 주택 부지 개발 계획도 올해 하반기(7~12월)에 새로운 공모를 실시할 생각을 나타냈다.

바수끼 장관은 도시 계획 공모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해졌다”며 “이러한 콘셉트들을 종합해 신수도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3개안을 이번 달 말경 신수도 건설 예정지 발표와 함께 도시 계획안의 수립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지 면적이 4,000~6,000헥타르에 이르는 KIPP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 계획안에 대해 협의의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계획 완성을 목표로 한다.

KIPP의 기간도로, 교량, 수자원 등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기초 설계를 완성한 후 다른 건조물이나 주택 구역의 준비에 대해 2021년부터 개발을 추진한다.

수도 개발에 대해서는 행동 계획 외에 약 4만 헥타르의 새로운 수도 개발에 관한 ‘건축 및 환경 계획(Rencana



Tata Bangunan dan Lingkungan, 이하 RTBL)’을 만들고, 주변 약 25만 6,000헥타르에 달하는 새로운 수도권의 개발 모델 지침도 만든다.

한편 바수끼 장관은 같은 날 새로운 수도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바수끼 장관은 “약 750건의

응모가 있었다”며 “최종 5개 안은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도 스스로 검토하고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1위는 현지 디자인 회사 ‘어반플러스(Urban+)’의 ‘나가라 림바 누사(Nagara Rim-ba Nusa)’안이 수상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시바라니 소피안(Sibarani Sofian)씨는 “핵심 콘셉트는 ‘조국과 숲’과 ‘빠타실라(Pancasila 인도네시아 건국 5원칙) 호수’이며, 문명 박물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동상과 기념비 등 국가를 상징하는 건조물을 만들어 도시 전체에 관용과 화합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개발 면적은 2,000~3,000헥타르로, 나머지는 자연의 숲을 그대로 살릴 계획이다. 항만, 공항, 철도의 연계를 추진하여 도시에서는 트램(노면 전차)을 주행시키며,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 차선을 정비하여 자동차의 주행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뿌트라자야를 설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반플러스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20억 루피아의 상금을 차지했다.

베리타스 디자인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도는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의 이상으로, 자동차 대신 사람을 위한 도시 설계로 지속성을 염두에 둔 ‘도시와 자연’을 중심 콘셉트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상세설계(DED)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수도 이전을 관할하는 ‘신수도개발청’을 발족시켜 4월 중 행정 구역과 정부 구조, 도시 계획, 방재 시스템 등 수도 이전에 관한 14개의 규정을 개정한다.

대원, 인니주택개발사업 신규 진출... 아파트 500여세대 신축분양사업



대원(대표이사 전용식)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부동산개발회사인 Jababeka(자바베카)의 자회사 PT

Grahabuana Cikarang(그라하부아나 치카랑)와 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부 약 30km에 위치한 자바베카 Industrial Park(인더스트리얼 파크) 내 골프장 옆 대지면적 약 3ha(3

만639㎡)에 아파트 3개 블록 약 500여 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프로젝트이다.

파트너인 자바베카 그룹은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회사이다. 인도네시아 부동산개발회사로서는 최초로 94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상업·주거용 부동산 및 산업인

프라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사업시행을 전담할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대원 측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자바베카 측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게 된다. 양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인 설립 및 사업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진출한 베트남 외 동남아 국가로 개발사업을 확장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경제신문]

부디 교통부 장관 “반뜯주와 주변에 공항 3곳 건설할 것”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7일, 반뜯주와 주변에 공항 3곳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현지 매체 뽀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주 땅으랑에 위치한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인 수까르노-하타 국제공항으

로의 여객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반뜯주 뜰룩나가(Teluknaga), 팡데글랑(Pandeglang), 서부 자바주 텐조(Tenjo) 지역에 각각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의 신설 계획은 마루프 아민(Ma' ruf Amin) 인도



네시아 부통령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산업부, 올해 제조업 투자액 최대 90% 확대



인도네시아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은 6일 올해 제조업의 투자유치 307조~351조 루피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50~9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만과 미국의 기업 등과 대형 투자사업 안건들이 현재 협의의 중에 있으며, '옵니버스 법'이 수립되면 투자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폼빠스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산업장관은 "석유화학 및 전자부품, 스마트 시티, 설탕, 항공산업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러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구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대만 정유사 최대의 공기업 CPC와 대만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라이트 맥스(LiteMax), 대만 최대 농산물그룹 타이완 슈가 코퍼레이션(Taiwan Sugar Corp), 미국 항공 부품 기업 UNICAL 그룹 등을 꼽았다. 2020~2024년 중기개발계획(RPJMN)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 27개소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은 수마트라

섬에 14개소, 깔리만판섬에 6개소, 술라웨시섬에 3개소 등 자바 외 산업단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제조업 투자액은 147조 3,000억 루피아였다. 연간으로는 188조 8,000억~204조 6,000억 루피아에 달한다. 아구스 산업장관은 이어 "올해 제조업의 목표 성장률은 4.8~5.3%이다. 지난해 4.48~4.60%로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의 국내 조달을 지원하는 등 제조업 전체의 생산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연내 취업자 수를 1,966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893만명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제조업의 목표 수출액은 1,363억~1,428억 달러였다. 지난해 식음료, 기초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1,237억~1,29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예상했다. 아구스 산업장관은 이어 "현재 중점 과제로는 나프타와 철광석 등 원자재 공급, 항만과 도로 등의 인프라 개발, 수도·가스·전기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 등이다"라며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과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정부령 78호(PP No.78 /2019) 특정 사업 분야 및 또는 특정 지역에 투자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 개정



김재훈 대표

투자활동의 실현 가속화 촉진, 경제 성장,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균형발전, 산업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령을 개정하였다. 정부령 78호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된 정부령 78호는 종전 정부령 9호(PP No.9 / 2017)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세혜택 대상이 종전 145개에서 183개 (lampiran I 166개, lampiran II 17개)로 늘렸고 O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종전 정부령과의 다른점으로 볼 수 있다. 기준과 조건은 PP No.78/2019를 구글등에서 검색하여 lampiran II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내의 분류표로 업종, 업종분류번호, 제품 범위, 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제 조건은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이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 자산 형태의 투자에 대해 총액의 30%까지 순 수익에서 감면, 생산초기부터 연간 5%씩 6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번 개정령은 유형자산이 신규자산이고(다른 나라로부터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 제외) 기본허가, 투자허가, 투자등록, 또는 사업허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주요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은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 종전과 같이 외국인 주주 배당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 세율 중 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이월결산금 공제기간 연장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지만 적용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되었다. 신청절차는 OSS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상업생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OSS에서 신규 사업허가를 발급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경제개발구역(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 대한 조세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조꼬위, 뚜반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 정유소 3년 내 완공 지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국영 석유 펄르타미나(PT Pertamina)에 대해 동부 자바 뚜반(Tuban)에 있는 뚜반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PT Tuban Petrochemical Industries, 이하 TPI)의 정유소를 3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지

시했다. TPI는 석유 화학 트랜스 퍼시픽 페트로케미칼 인도타마(Trans-Pacific Petrochemical Indotama, TPPI)의 모회사로, 펄르타미나는 지난달 초 TPI의 주식 51%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뚜반 정유

건설 현장을 시찰한 후, 펄르타미나 닉케 사장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훅)감독 이사회 회장 등에게 건설을 가속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뚜반 정유소 가동 후 TPPI의 석유 화학 플랜트가 가동되고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면 49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닉케 사장은 석유 화학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40조~50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석유 정제와 석유 화학의 통합형이 된 TPPI의 플랜트가 가동되면 에너지 비



용과 생산 비용을 최대 15%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2억 6000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서 기회잡자”

데일리 인도네시아 신성철 대표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유니콘 4개 스타트업도 주목’

아래 기사는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신년특집으로 마련한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과의 인터뷰 클립입니다. [편집자주]



인구 6억 5000명의 아세안(ASEAN)의 시장이 물려오고 있다. 아세안은 해양국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대륙인 인도차이나 쪽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여기에는 아세안을 둘러싸고 있는 13억 명의 인도, 13.8억 명의 중국 등 거대한 인구를 토대로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경제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로 국민들에게도 ‘아세안’이라는 말이 아로새겼다.

아세안익스프레스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해의 맞아 인사이드 있는 아세안 전문가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쥐띠해, 그것도 힘이 아주 센 ‘흰쥐의 해’에 뜨겁게 타오르는 아세안 시장을 주목해보자.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GDP 세계 16위의 경제대국이다. 석유, 가스, 석탄, 팜오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인도네시아편에는 대학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30년 전 인도네시아 한 기업에 입사한 이후 이주해, 현지 미디어 ‘데일리인도네시아’를 운영하는 신성철 대표와의 인터뷰를 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남방정책 적극 추진할 동력 확보

질문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열린 동남아학회 한 세션의 사회를 보았다. 학술대회에서의 사회를 본 소감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세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뒤쳐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만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청와대

현실이다. 아세안 시장을 선점한 일본과 물량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과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두 나라에 편중된 경제협력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인다. 또 각축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 간 아세안에서의 견제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잇따라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지켜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의 10개 대화 파트너 중 자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천명한 신남방정책을 공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신남방 핵심국가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것은 큰 성과다

발리는 가 봤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가본 적이 없다”는 아 이러니

질문2. 신성철 대표는 30년

전 고국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30년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몇 개의 예를 들어달라

“발리는 가 봤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은 “제주도는 가 봤는데 한국은 아직 가본 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이는 일반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을 풍자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를 관광지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와 협력할 동반자로서의 관심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국 유력 방송사들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함을 볼 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을 설명하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니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영상을 내보냈고, 2018년 자카르타-필렘방 아시안게임 홍보영상에 인도 대중음악을 삽입곡으로 넣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해 벌어지는 해프닝은 적지 않다.

질문3. 데일리인도네시아를 장간해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미디어 대표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 3가지만 들어달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기자는 노숙자보다 높지 않고 대통령보다 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또 음식에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뉴미디어 시대에 언론매체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쉽지 않지만, 내가 속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교민 3만 명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집필...해외 투자 1호 등 산 역사

질문4.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를 집필에 참여하는데 책에 대한 소개(책을 만들 계기와 담길 주요 내용)와 이민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이민자 숫자, 한국 기업사, 관광객 등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는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1883~1947) 선생이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올해 9월 책자 출간이 목표다.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는 양국의 경제, 정치 환경과 궤를 같이하는 만

큼 인도네시아 산업, 특히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한인 기업 진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해 준 국가다. 무엇보다 1호가 많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KO-DECO)의 원목 사업과 이듬해 진출한 코린도그룹, 1973년 ‘한국 해외 생산 플랜트 수출 1호’인 대상기업(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 1981년 ‘한국 최초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서마두라 유전 공동 개발이 그렇다.

최근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 타결로 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한층 늘어나 현재 현지 교민 수는 현재 3만 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POP,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한국 브랜드 높여줘

질문5.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달라. K-POP,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등 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교민들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들을 소개해달라

인도네시아 현지 외국인직접투자(FDI) 경영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부딪히며 직접 경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특유의 친밀감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올려줘 경제유발 효과는 적지 않다.

질문6. 한국 기업이나 민간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만 소개해달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고 많은 종족과 문화를 갖고 있는 다문화 국가인 만큼 우리와 많이 다르고 다양하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가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급변하고 발전하는 만큼 지속적인 현지 연구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보기술 단계를 여러 단계 뛰어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는 결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핀테크를 통한 무현금 결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 9배 규모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60%가 40세 미만인, 평균 나이 29세의 젊은 나라다.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인구 구성과 소비시장에 대한 더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발릭빠빠로 수도 이전에서 신도시-스마트시티 등 한국에게 큰 기회 생길 것

질문7. 인도네시아에서 새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와 핫 키워드 전망을 부탁한다. 가령 유니콘 기업이나 트렌드, 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디지털 경제 수용이 유연하고 빠르다. 한국 유통업체와 스타트업조차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진행 수준에 감탄할 정도다.

‘타다’ 서비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이지만 디지털 모델을 시도하기 쉽지 않다. 다



▲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칼리만탄섬(보르네오섬)의 발릭빠빠로 인근 새 수도 당선지.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궁

하지만, 때론 서로 반감을 품을 만한 일이 발생하곤 한다. 다행스럽게 K-POP,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브랜드의 가치를

양하고 시험적인 디지털 사업 모델을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같이 규제가 유연한 지역에서 시도해본 뒤 성공한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개선될 것인 만큼 시간을 버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10월 23일 고젝(Go-Jek) 창업자 나딤 마카림을 교육문화부장관으로 발탁했다. 고젝은 차량 호출은 물론 음식 배달, 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4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Kutai Kartanegara)군 일부 지역에 건설하겠다고 지난해 8월 26일 공식 발표해 놀라게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새 행정수도 이전 지역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도 선정 발표했다.
자카르타에서 1400km 떨어진 동부칼리만탄으로 이전되는 새 수도는 교통과 통신망,

질문8.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싶은 일과 경자년 이루고 싶은? 좌우명도 소개해달라.

우공이산(愚公移山)이 좌우명이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쉽게 흠을 나르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데, 목표한 대로 내년 9월에 출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며, 진행하고 있는 학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질문9.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을 맺은 계기는?

중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권유로 우연하게 시작된 해외 펜팔이 나의 여마살을 단단하게 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학생과 펜팔 친구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이러한 인연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선택했다.

학교 졸업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상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미디어 데일리인도네시아를 창간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에 대한 공부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와 시장은 아세안이며, 더 이상 아세안은 대안 시장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라는 말이 있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이러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품는 뉴스미디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아세안익스프레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사무용 빌딩과 아파트 등 활동을 위한 건축 및 운영시스템까지 한국 기업과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수도 이전 예정지인 깔리만 판섬(보르네오섬)의 발릭빠빰 인근 지역은 원목과 광산 등 자원사업 관련 한국기업들이 이미 40년 이상 사업해온 지역인 만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 이후 수도이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정보다 1년 당겨 내년 중반에 개간작업과 정부 관청을 짓기 시작하고 동시에 발전소, 상하수도 및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을 시작해 2023년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국은 2억 6000만명의 인도네시아의 수도의 깔리만 판섬 이전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쉽 없이 흠을 나르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동남아학회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맡은 신성철 대표. 사진=박명기

실제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경제의 선두주자다. 인터넷 사용 인구 1억 5000만명 중 95%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성인 인구의 60%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모바일 강국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기준 세계 1위 비율로 e커머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젝, 토크피디아(Tokopedia), 트래블로카(Traveloka), 부카라팍(Bukarapak)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4개나 보유하고 있는 신흥 스타트업 강국이다.

수도 이전은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 건설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마트시티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 수도를 동부칼리만탄 북부 퍼나잠 파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쿠타이 카르타나가라

소프트뱅크 손정의, 조코위 만나 “인니 새 수도에 투자”

보르네오섬 동갈리만탄 신수도 건설 투자계획 논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이끄는 제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로 건설하는 수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과 면담 후 “신수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잠재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스마트시티, 최신 기술, 깨끗한 도시와 인공지능(AI)에 관해 논의했다”며 “그것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도 조코위 대통령과 손 회장이 동갈리만탄의 신수도 투자 잠재력과 다수의 개발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탄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새 수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해 최우수작을 선정했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설계부터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손 회장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직접 투자 가능성을 논의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이 뛰고 있기에 참여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국도 초기에 더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다.

손 회장은 작년 7월에도 조코위 대통령과 만나 “5년간(승차공유업체) 그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2조 3천67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재외국민 대상 영사서비스 개선 사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은 지난해 개선된 영사 민원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됐다.

※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

2.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었다.

별도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이며,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는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 2019.10.21.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33개국이다.

3.청년들의 해외 체험 및 진출 기회 확대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통상 1년간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금년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

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한 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300명의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취업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상시모집도 시작했다.

4.찾아가는 영사서비스 강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해 순회영사 민원처리 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5.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해외에서도 가능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등록이 가능해졌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권 서비스 개선

우리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Henley Passport Index). '2019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로이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제고해갈 예정이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 동의 필요)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다.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2018년 하반기 4,328건에서 2019년 하반기 2,745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전알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여권이 발급된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 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 점자여권 :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

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국민외교 UCC공모전」을 통한 국민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다.

7.해외에서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업무 처리 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일본(대), 주LA(총) 대상 시범 실시, 금융결제원 및 국내 14개 은행 참여

8.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리뽀그룹, 1.3조 루피아에서 뽀자뽀 빌리지 등 2개 상업시설 매각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기업 리뽀 까라와찌(PT Lippo Karawaci)는 8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자회사 LMIRT(Lippo Malls Indonesia Retail Trust)가 2개 쇼핑몰을 총 1조 2,807억 루피아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LMIRT의 자산 매각은 2007년 싱가포르 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다. 뽀자뽀 빌리지(Pejaten Village)가 9,974억 루피아, 북부 수마뜨라 빈자이시 빈자이 슈퍼몰(Binjai Supermall)이 2,833억 루피아로 니르바나 와스투 뽀라따마(Nirvana Wastu Pratama, NWP)에 매각됐다. 모두 2012년 인수 가격보다 높게 매각됐다. NWP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니르와나 디벨롭먼트(PT Nirwana Development)와 미국의 자산 운용 회사 우오바구 핀 커스와 합작회사이다.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새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창신 나이키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채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타엠 에코스마트시티
 중국 청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외 다수 실적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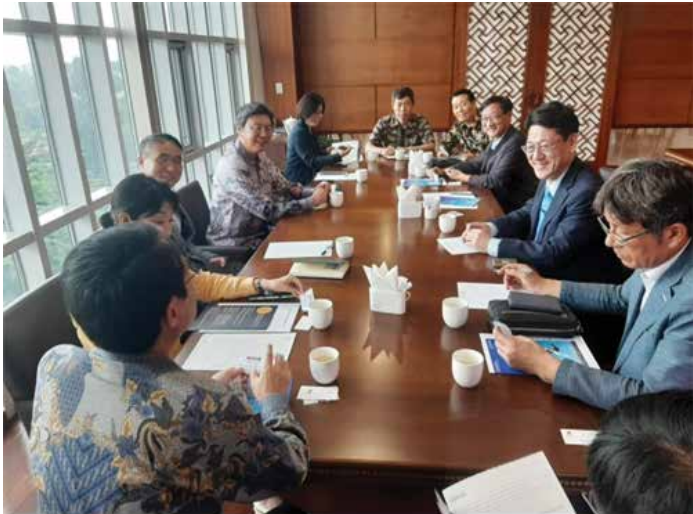


● Poland ● Mongolia ● Shenyang, China
 ● Dalian ● Seoul, Korea
 ● Libya ● Shanghai ● Hanoi, Vietnam
 ● Senegal ● UAE ● Myanmar ● Laos ● Hochiminh, Vietnam
 ● DR Congo ● India ● Malaysia ● Jakarta, Indonesia
 ● Malawi

JUNGLI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발리 한국인 관광객 하루 1명꼴 도움 요청...8월 영사관 설치

주인니 대사관 신년 간담회 “총선·한인 이주 100주년 준비”



▲ 주인니 대사관, 신년 언론인 간담회[자카르타=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섬 덴파사르 시내에 오는 8월 한국 대사관 영사관(분관)이 설치된다. 김창범 주인니 대사관 차장은 10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5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20만명이 발리를 방문했다. 교민 600명도 발리에 산다. 지난해 발리에 온 한국 관광객이 사건·사고 등으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한 사례는 300건 안팎으로, 하루 1명꼴에 이른다.

발리 영사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 필리핀 세부 분관, 캄보디아 시엠립 분관과 마찬가지로 총영사관보다 규모가 작은 분관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된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사례에 비춰보면, 발리 분관에 외교관 2명을 파견하기 위한 직제 개정이 4월에 이뤄지고,

8월에 실제 파견될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발리 분관은 발리섬과 함께 인근의 롬복섬, 숭바와, 쿠방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 대사는 “한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인이 27만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1.8%나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동남아 ‘VIP 3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의 단체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무비자로 5일 동안 체류하게 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인 관광객이 2020년에도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법 체류자 발생 시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주인니 대사관은 올해가 한인 이주 100주년이기에 이와 관련한 사업과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금을 지원한 장윤원 선생이 망명 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자카르타(바타비아)에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한다.

총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올해 2월 15일 까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하거나



▲ 장윤원 선생과 중국인 부인, 자녀들[재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교민 2만3천명 가운데 1천4명만 등록한 상태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대사관 측은 독려했다.

이밖에 대사관은 교민 470여명의 보험금이 1년 넘게 묶여 있는 ‘지와스라야 사태’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분담금’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해변[연합뉴스TV 제공]

인디랜드 디벨롭먼트 등 부동산 대기업 2개사, 산업단지 개발 사업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기업 인디랜드 디벨롭먼트(PT Intiland Development)와 수르야 스페스마 인디누사(PT Surya Semensta Intemusa) 두 회사는 올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자바에서 높아지고 있는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한다.

현지 언론 끈판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디랜드 디벨롭먼트는 중부자바주에서 새로운 공업단지 개발에 착수한다. 부지면적은 287헥타르에 달한다.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았다. 동부 자바 수라바야 근교 모조계르포군의 NIP 공단 확장 공사를 진행한다.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은 1조 5,000억

루피아로 일부 투입한다.

수르야 스페스마 인디누사는 서부자바주 수방군에서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부지의 약 70%를 공단으로, 나머지는 주거 지역으로 정비한다. 공단에는 25~35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한편, 제1기 공사 건설비로 작년 8월에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에서 1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 Leading Logistic Provider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와스끼따 톨로드, 2개사 지분 홍콩 회사에 양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와스끼따 까르야(PT Waskita Karya)의 자회사 와스끼따 톨로드(PT Waskita Tollroad)는 지난달 18일 보유하는 자바 섬

횡단 고속도로 2개 구간의 운영 회사 2개사 지분 40% 전부를 홍콩 인프라 개발 회사 로드 킹 인프라스트럭처 리미티드(Road King Infrastructure Limited) 계열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양도한 회사는 킹스 키 리미티드(Kings Key Limited)로, 매각 금액은 2조 5,000억 루피아다.

양도한 것은 중부 자바 수라까르따(솔로)-동부 자바 응아위(Ngawi)(약 90.43km) 구간을 운영하는 자사마르가 솔로 응아위(PT Jasamarga Solo

위(Ngawi)(약 90.43km) 구간을 운영하는 자사마르가 솔로 응아위(PT Jasamarga Solo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장관은 10일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준고속철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

Ngawi)와 동부 자바 응아위-그르포소노(Kertosono)(약 87km)의 운영 회사 자사마르가 응아위 그르포소노 콘디리(PT Jasamarga Ngawi Kertosono Kediri) 2개사의 지분이다.

현지 매체 끈판의 보도에 따르면, 와스끼따 톨로드 관계자는 또한 보유 중인 16개 구간의 운영 회사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4개 구간의 양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디 교통장관,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도 착공은 2021년으로 앞당길 계획

부디 교통장관은 “9월 시점 2023년말 착공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에서 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협력기구(JICA)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 달려있다”라며 “JICA의 초기 타당성조사가 3월에 완료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부디 교통장관은 “9월 시점 2023년말 착공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에서 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협력기구(JICA)가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 달려있다”라며 “JICA의 초기 타당성조사가 3월에 완료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부와 JICA는 지난해 9월 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협상 결과를 정리한 요약 기록(summary record)을 체결했다. 2024년 자카르타-서부자바주 짜레본 구간의 운영을 시작, 2025년에 전면 개통을 목표로 내걸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이상 - 50 세 미 만 - 건설사 경력 5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건설
자카르타 021 521-1883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건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
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H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PT.POWERTECH ENG & CONST
021 520-2025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전기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PT. RIZKY KIM INDONESIA
건축 가설재
땅그랑 021 5577-8383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
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HANSHIN
컴프레샤
땅그랑 021 5949-4000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8327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땡 0721 780 151, 0721 781 457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설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찐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자카르타 021 2902-2342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땅그랑 021558-6446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Ruko Spark Block C No. 26 Gading
Serpoing Tangerang
땅그랑 021 2901-5282

인테리어

INNOMATE
Interior, Office Design, Exhibition
자카르타 021 7919-2006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특 징 :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 업체 대표님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기업 약 1,000여 업체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e-mail : **khong3000@gmail.com**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GA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 7220

컴퓨터, CC TV, 보안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Computer LAN/Sound System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장비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미-이란 긴장 반복되면 국제유가 100달러 갈 수도”

미국과 이란의 극단적 긴장이 반복되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독일의 보험사이자 세계적인 기관투자자인 알리안츠그룹은 ‘이란-미국 충돌: 불안정한 데탕트(긴장 완화), 지역적 불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간 0.1%포인트 하락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제 유가 전망치를 종전 배럴당 62달러에서 65.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극심한



미국-이란 충돌 (P-G)
[강연주 기자] 일러스트

긴장 상황이 여러 차례 되풀이될 경우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치솟는 것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해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제의 타격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오른 뒤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전 세계 지수는 12개월 뒤 2% 하락하고 20개월 뒤 하락 폭은 9%로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한 상태로 1년

이 지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GDP 증가율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의 경제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지고 인도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점쳐졌다.

보고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구 구매력이 위축돼 개인 소비가 줄면서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각각 경제성장률이 2.1%포인트와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멕시코(0.7%포인트), 러시아(0.6%포인트), 아랍에미리트(0.5%포인트), 노르웨이(0.4%포인트) 등은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도 지난 7일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급등하면 전 세계 GDP는 2022년 초까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BI는 이 경우 GDP 대비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특히 커질 수 있다면서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을 지목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지난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자 배럴당 70.82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배럴당 65달러 근처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인니 산업부 장관 “LG화학, 전기차 시범사업 참여 기대”

니켈 · 코발트 · 망간 생산하는 인니, ‘전기차 허브’ 꿈꿔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LG화학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오토바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콤파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자카르타에서 LG화학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다며 “LG화학이 예를 들어 전기 모터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왕 장관은 “LG화학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오토바이 회사와 협력하길 바란다”며 “서트뽕과 자카르타의 기술평가응용원(BPPT)에 설치된 충

전시실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LG화학과 파트너사들이 자카르타와 땅그랑에 배터리 교환과 충전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관련 각종 혜택을 발표하고,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유치,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에는 총 자동차 생산량의 20%를 전기차(오토바

이)가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미왕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2030년에 전기차 허브가 된다는 목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발리섬과 자바섬 반둥 등에 충전소를 갖추고 전기 오토바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투툽’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Grab)과 고젝(Go-Jek)도 참여했다.

약 3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 역시 작년 가을부터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전기 택시 수 십 대를 배치해 시내를 오가며 시범 운행 중이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LG화학과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SM3 ZE. 전기차 택시 배터리 교체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Furniture DONGSEO
동 서 가 구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